TEN ROOMS OF THE MIND

GENETICS

Origin



GILLETTE의 유전학

기원

마음의 열 개의 방

우리 각자가 한 번도 고른 적 없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다.

그 집에는 주소가 없다.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집을, 지금껏 정말로 살아 본 어떤 곳보다 더 잘 안다. 안에는 열 개의 문이 있다.

어떤 문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매일 연다.

어떤 문은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척하며 잠가 둔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도 어쩐지 똑같이 우리 안에 지니고 다니는 방들이 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심리학 교본도 아니다.

이것은 이 열 개의 방을 하나씩, 자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온 한 남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몇 해를 더 얹은 그가, 그 방들을 자신이 겪은 그대로 정확히 그려 내려 애쓰고 있다.

열 개의 문.

나는 그 문을 모두 열었다.

어떤 문은 호기심으로.

어떤 문은 마지못해.

어떤 문은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에야.

이 방들이 낯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방들이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 아니다.

마음 깊은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기 때문이다.

Ferdinando

유전학 — 기원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그분들의 침묵.

그분들의 고집.

그분들의 두려움.

그분들의 규율.

그러나 나는 실수를 했다.

나의 어머니를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나를 세상에 낳아 주신 여인.

나는 어머니를 내 얼굴에서만 찾았다.

유전은 서가 없는 도서관이다.

살 속에 쓰인 기록 보관소.

모든 몸짓에는 흔적이 담겨 있다.

모든 반응은 하나의 기억을 간직한다.

우리는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싸움을 지고 다닌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두려움을.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우리는 결코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다.

우리는 이어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보다 훨씬 큰 이야기의 다음 장이다.

그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이목구비에 쓰여 있지 않았다.

눈에도 아니고.

얼굴 생김새에도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 속에 쓰여 있었다.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 조용한 방식 속에.

소리 내지 않고 견디는 힘 속에.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나는 나의 어머니를 보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알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Ferdinando